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담배를 피다
- ② 날이 개이다
- ③ 고기를 채다
- ④ 차에 치다

문 2.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 ② 씹씹씹, 명중률, 푸주간
- ③ 등교길, 늪름하다, 깡충깡충
- ④ 돌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문 3.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 ① 지름길 - 捷徑
- ② 비웃음 - 苦笑
- ③ 마름질 - 裁斷
- ④ 게으름 - 懈怠

문 4.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솟아내서 (㉢) 환해졌는데 그래도 (㉣) 울창했던 것인지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 | | ㉠ | ㉡ | ㉢ | ㉣ |
|---|-----|-----|-----|-----|
| ① | 뻥뻥이 | 무성히 | 자못 | 위낙에 |
| ② | 쭈쭈히 | 뻥뻥이 | 위낙에 | 겨우 |
| ③ | 무성히 | 쭈쭈히 | 겨우 | 미처 |
| ④ | 뻥뻥이 | 무성히 | 미처 | 자못 |

문 5.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뎃점을 쓴다.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문 6.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欲速則不達

- 『論語』 -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문 7.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 ㉠ | ㉡ |
|---|-----|-----|
| ① | 生成性 | 死滅性 |
| ② | 模糊性 | 明示性 |
| ③ | 動態性 | 靜態性 |
| ④ | 多彩性 | 規範性 |

문 8.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이빨을 준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라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곱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 내가 크게 웃으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려 한 것일진대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려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땅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 박지원, 「상기(象記)」 -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문 9.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 서론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 IV. 결론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문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② 노인들은 꽃나뭇잎을 잘들 키우신다.
- ③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 ④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문 12.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문 13.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②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 ③ 多情도 病人 恙하여 줌 못 드러 호노라
- ④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문 14.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호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밋줄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밋 흥운을 헤악고 큰 실오리
긋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귀운이 진흥 긋흔 것이
촉촉 나 손바닥 너비 긋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숫볼빛 긋더라.
촉촉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긋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긋고 묶고 통낭호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②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 ④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문 15.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셨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자주 ㉧연락드릴게요. 내내 평안하세요.

-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